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지원 체제 탐색*

이 병 환(순 천 대 학 교 교 수)

정 영 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김 순 남(오하이오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

《 요 약 》

이 연구는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지원 체제를 다각도로 모색한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 역량 배양은 물론이고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지원 체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성화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적 역량 배양은 대안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도 제도적 차원과 연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안학교란 용어가 학교교육의 혁신 모델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사회의 관심과 기대속에 독특한 건학 이념으로 운영되어온 대안학교의 성과를 진단하고 공교육 개혁의 청사진으로 대안학교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대안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간의 대안교육 추진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고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교육활동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질 관리 방안 탐색은 향후 대안학교의 대안적 학교상 전망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대안학교, 자율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 재량활동, 특별활동

* 이 논문은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교육부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고 제2004-19호).

I . 서론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체제내에서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일은 대단히 절실한 문제이다. 대안교육의 철학과 이념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부족하다면 한낱 이상적 전망만 쫓고 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의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모색은 대단히 의미있는 과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안학교·대안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육자를 포함한 높은 교육적,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정작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학술적 탐색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특성화 대안학교의 형태로 제도교육에 편입되어 운영되어 온 지 약 10년 가까운 시일이 경과하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 대안학교의 운영 성과를 진단·평가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 체제를 정립하는 일이다. 즉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의 근본적인 관점과 실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학교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외형적 변화에만 그친다면, 기존의 학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또 다른 하나의 학교’를 만드는데 그칠 우려도 있다(Koetzsch, 1997, p. 11). 실제 전국의 정규학교 형태의 대안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대안학교의 본질과 이념의 실현방법에 대한 빈곤을 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안학교가 공교육과 유리된 폐쇄적인 탈학교 논의의 장이 아니라 공교육의 문제에 대한 증거 제시라는 점에서 양자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안교육이 공교육을 견인하고 학교 문제에 대한 상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남은 일은 끊임없는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일일 것이다. 대안교육이 진정 제도권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적인 연구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대안교육의 정체성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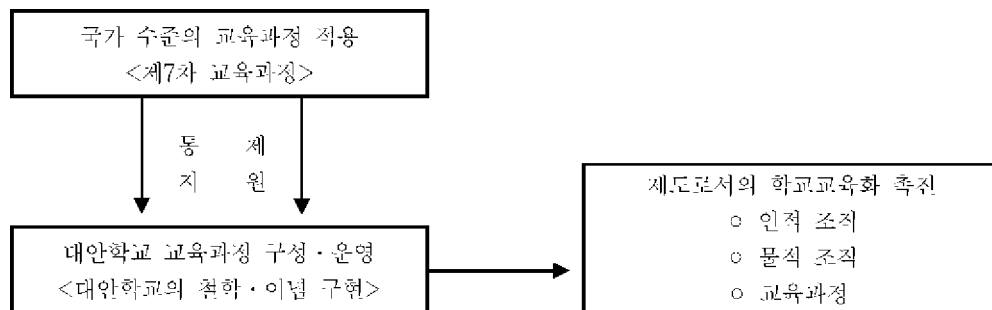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을 두고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체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한다.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개혁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연구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II . 대안학교 교육과정 검토의 틀

1.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각 대안학교 설립 이념 및 철학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학교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구성·운영될 때는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공통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게 된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안학교의 자율성을 그만큼 구속하게 되어 본래의 이념 및 철학을 구현하는 데 저해된다. 반대로 전적으로 자율성에 따르게 되면 국가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을 벗어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 교육과정 적용시 이 양자를 어떻게 고려하여 설정할 것인가에서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양자를 기반으로 대안교육과 국가수준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구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대안학교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통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림 1] 국가 교육과정과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관계

원래 대안학교는 그 학교의 독특한 교육이념 및 철학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독특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대안학교의 설립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도 그 학교의 독특한 교육이념 및 철학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경우 그들의 교육이념 및 철학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부족한 자원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일반학교와 동일한 공통 교육과정을 강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오히려 대안학교의 독특한 교육이념 및 철학을 구현하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로서의 학교교육화를 촉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안학교가 제도로서의 학교교육화로 진전된다고 하는 것은 대안학교도 공교육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로서의 학교교육화는 대안교육이 일정 정도 국가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육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와 동일한 요구와 국가에 대한 대안교육의 지나친 의존은 대안학교가 제도로서의 학교교육화에 적응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적용과 지원이 제도로서의 과도한 학교교육화를 초래하여 대안교육의 이념 및 철학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단위학교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일반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더구나 대안학교 구성원의 전문 연구 역량의 부족은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열악함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교사 개인에 의존하는 현실 상황은 교사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통한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설계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구현해 내는 모처럼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안도 각 대안학교가 그 교육이념 및 철학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학교체제의 유형

가. 특성화고등학교 제도

우리나라에서 대안교육이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으로 운영된 계기의 하나로 특성화고등학교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안학교의 의미를 단순히 중도탈락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로 재규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에 의한 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화하는 90년대 교육개혁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대안학교가 점차 제도화되면서 대안교육을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이 벌어졌는데 대안학교가 마치 정규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¹⁾.

그러나 이것은 당초 대안교육운동가들이 꿈꾸어 왔던 대안학교에 대한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협소한 개념이었다(이병환, 2001, p. 32).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이후 정책을 다소 수정하였다. 대안학교의 의미를 중도탈락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로 재규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민간에 의한 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7년에는 고교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정원과 부지 그리고 시설 기준 등을 크게 완화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 명칭을 특성화고등학교로 정하고, 1998년 3월에는 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에 6개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가 개교한 이후 2004년 현재 18개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이병환, 2004, p. 40).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특성화학교는 유형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문 직업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서 기존의 실업계 학교의 특화된 유형이 그 하나이며, 학습자 중심의 인성교육과 자연친화적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형태가 그 두 번째이다. 내중음악, 영상, 디자인, 문학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성화학교가 첫째 유형에 속하고 종래 법적으로 정규학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각종 대안학교들이 정규학교 체제로 편입되어 학력 인정과 함께 앞으로 다른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학교가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주철안·성병창·한대동, 1999, p. 76).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외에 특성화교라는 새로운 고교유형으로 창설된 정규 고등학교의 하나이다.

나. 자율학교 제도

자율학교는 1998년 초·중등교육법 제정 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학년도부터 2001학년

1) 이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의 범위를 정규학교형 대안학교 중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18개교로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안학교의 개념 규정에 관한 일치된 의견이 없고 그 범위와 영역을 둘러싼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안교육 전문가들은 독특한 학교경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풀무학교나 거창고등학교를 대안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서 교육부가 지정한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학교 18개교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따라서 전술한 2개교나 비정규형 대안학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안학교의 경우 첫 자율학교 운영 시범 기간(1999~2001)에는 5개 학교, 2차 시범운영기간에는 7개교, 2004년도 현재는 12개교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율학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의 확대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개혁의 기본이념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유은중, 2002, p. 29).

자율학교는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제도로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자율성·특례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율학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령상의 광범위한 특례규정과는 달리 기존 학교교육의 틀을 해치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장임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택 등에 한정하여 기존학교와는 달리 자율 특례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상당수의 대안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이면서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종태, 2002, p. 17).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자율학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이수단위(204)의 1/3 정도에 불과한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성화 교과」로 표현되는 교과목들은 대개가 학교 나름의 고유한 교육이념에 비추어 독창적으로 고안된 것들이다. 다만 자율학교가 아닐 경우 특성화 교과의 편성과 운영에 한 가지 애로사항이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교과의 운영에 필수적인 교재의 준비 문제이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1종 또는 2종)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홍후조 외, 1999).

그러나 불과 수십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과에서 체계가 잡힌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자유롭게 되는데 자율학교로 지정될 경우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Ⅲ.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1. 조사내용 및 방법

2004학년도 현재 18개 정규 특성화 대안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이수 및 교과서 재구성 상황
- ② 일반선택 및 심화선택 이수상황
- ③ 시·도 교육청 지정 이수과목 운영 상황
- ④ 학교 독자적 교과목 개설·이수 상황
- ⑤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저해 요소
-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 및 국가에 대한 요망 사항

상기 6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는데 18개 대안고등학교 중 13개교가 응답을 해 주었으며 응답자는 주로 부장교사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상기 6가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학교명은 응답 학교의 내부 입장을 고려하여 A교, B교, C교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조사결과 검토

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이수 및 교과서 재구성 상황

대안학교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설문에 응답한 13개 학교가 모두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이수하고 있었으나 학교에 따라 1학년에 모두 이수하도록 편성하는 학교와 1학년과 2학년에 나누어 이수하는 학교도 있었다.

응답한 13개교 중 8개교가 1학년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5개교가 1학년과 2학년에 나누어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1학년과 2학년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1학년에도 특성화 교과를 편성·운영하기 위한 것을 들고 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 9개교가 재구성을 하고 있고 4개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하는 교과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경우가 많았고 사회, 기술·가정 교과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 미술 교과를 재구성하는 학교도 있었다.

학교의 실정에 비추어 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좋다’라고 응답한 학교가 3개교이고, ‘현행대로 두되 2, 3학년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학교가 3개교, ‘10개 교과 중 주요 교과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교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학교가 6개교였다.

현재 국민공통기본교과는 학교의 실정에 따른 운영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교과에 대해서는 주요 교과를 필수로 하면서 나머지 교과는 선택교과

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1학년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정에 따라 2, 3학년에서도 이수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일반선택 및 심화선택 과목 이수 상황

<표 1> 대안학교의 일반선택 과목 편성 상황

학교	편성 과목	단위
A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일본어 I, 한문, 철학, 생활경제, 종교	30
B교	실용수학, 한문, 음악/미술생활, 정보사회와 컴퓨터, 체육실기	22
C교	국어생활·시민윤리(택1), 정보사회와 컴퓨터, 체육과 건강·미술과 생활·음악과 생활(택1), 영어회화, 한문, 심리학·종교(택1)	24
D교	시민윤리, 영어회화, 국어생활, 실용수학, 체육과 건강, 생태와 환경	30
E교	일본어 I, 진로와 직업, 국어생활, 종교, 정보사회 컴퓨터, 번과 사회, 한국근현대사, 한문, 인간사회와 환경, 생활과 과학, 미술과 생활, 체육과 건강, 수학 I, 영어회화, 문학, 세계사, 수학 II, 한국지리, 생물 I, II, 농업과학 中 24단위 선택	24
F교	시민윤리, 인간사회와 환경, 정보사회와 컴퓨터, 체육과 건강, 음악 생활, 미술과 생활, 일본어 I, 철학, 생태와 환경, 종교/진로와 직업	48
G교	독서, 문학, 수학 I, 영어 I, 영어회화, 선택(음, 미, 제)	24
H교	국어생활, 실용수학, 생활과학, 체육과 건강, 음악과 생활, 미술과 생활, 한문, 종교, 생태와 환경	41
I교	국어생활, 체육과 건강, 한문, 미술과 생활, 음악과 생활, 시민윤리, 실용수학, 진로와 직업, 논리학, 심리학 등	32
J교	국어생활, 생활과 과학, 정보사회와 컴퓨터, 체육과 건강, 중국어 I, 한문	30
K교	국어생활, 정보와 컴퓨터, 영어회화, 한문, 종교	26
L교	인간사회와 환경, 정보사회와 컴퓨터, 체육실기, 일본어 I, 한문, 종교	28

일반선택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24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에 응한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수단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선택 과목을 <표 1>과 같이 이수하도록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응답한 학교의 사례에서 볼 때 일반선택 과목에서 가장 적은 이수단위가 22단위이고 가장 많은 이수단위가 48단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선택 과목 이수단위 기준인 20단위 이상을 편성하고 있으며, F교와 H교의 경우는 각각 48단위와 41단위로 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하여 편성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선택 과목의 경우 모든 대안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제시한 기준단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화선택 과목의 편성 상황에 대해서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이 심화선택 과목의 이수단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ל적으로 이수단위를 표기하기가 어렵다. 대안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의 경우는 학교의 자율에 따라 교과목을 설치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선택과 마찬가지로 심화선택에 있어서도 학교에 따라 편성 과목은 달리하지만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과목을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대안학교의 심화선택 과목 편성 상황

학교	편성 과목
A교	체육실기, 음악실기, 미술실기, 영어독해, 독서, 문학,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수학 I
B교	문학, 수학 I, 영어회화, 독해,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법과 사회, 생물 I, 농업과학
C교	문학, 독서, 작문,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정치, 사회문화, 실용수학, 수학 I, 수학II, 비문적분, 물리 I, 생물 I, 화학 I, 지구과학 I, 영어 I, 영어II, 영어독해, 중국어 I, 일본어 I(학생 선택에 따라 단위 수 다름)
D교	문학, 독서,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법과 사회, 수학 I, 영어독해
E교	물리 I, 물리II, 공업기술, 체육실기, 음악실기, 미술실기, 영어 I,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사회문화, 정치, 실용수학, 영어독해 나 선택이수(개별선택)
F교	독서, 문학, 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사회, 문화, 수학 I, 확률과 통계, 생물 I, 체육실기, 음악실기, 미술실기, 영어 I, 영어회화, 영어독해
G교	공통, 과학기술, 인문사회 과학, 음, 미, 체 관련
H교	문학, 전통윤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수학 I, 생물 I, 물리 I, 배드민턴
I교	문학, 작문, 세계사,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정치, 수학 I, 영어 I, 영어회화
J교	독서, 문학, 한국근현대사, 경제, 수학 I, 수학II, 화학 I, 사회문화, 농업과학, 영어회화, 컴퓨터 일반

일반선택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기준인 20단위 이상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특성화 교과는 심화선택과목 이수에서 편성·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심화선택 과목의 경우 「심화선택 과목+특성화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경우도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에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졸업이수 단위(총 이수단위)인 216단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학교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에 의해 학교 자체적으로 일반선택과 심화선택 이수단위를 모두 특성화 교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 시·도 교육청 지정 이수과목 운영 상황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이수과목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10개교였다. 이 10개교 중 시·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과목을 작성해 준 학교의 편성상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시·도 교육청 지정 이수과목 상황

학교	지정 과목
A교	정보사회와 컴퓨터(4), 일본어 I (8), 한문(4), 철학(4), 생활경제(4), 종교(4)
B교	한문(6), 정보사회와 컴퓨터(4)
C교	영어 I (8)
D교	시민윤리(4), 생활명상(4)
E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진로와 직업
F교	시민윤리(4), 정보사회와 컴퓨터(4), 체육과 건강(6), 영어회화(6), 일본어(4), 생태와 환경(6), 철학(4)
G교	문학(8), 수학 I (8), 영어 I (8), 교양(4)
H교	국어생활(4), 생활과 과학(4), 체육과 건강(6), 중국어 I (6), 한문(4), 생활경제(4)
I교	국어생활(4), 정보사회와 컴퓨터(4), 체육과 건강(6), 일본어 I (6), 한문(6), 종교(4)

C교의 경우는 1개 과목으로 가장 적었으나, A교와 F교, H교, I교의 경우는 6개 또는 7개 과목을 시·도 교육청에서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이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교가 2개교이고 반대하는 학교는 5개교, 어느 쪽이든 좋다고 응답한 학교가 5개교였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이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학교 독자적 교과목 개설·이수 상황

학교 독자적으로 교과목을 개발하여 필수이수 과목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9개교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이들 과목은 심화선택 과목과 함께 특성화 교과로 개발하여 편성·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 5>와 같이 학교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 이수하도록 편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과목 역시 특성화 교과목으로 편성·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표 4>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학교 나름대로 교육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독특한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 독자적 개발에 의한 필수 이수과목

학교	과 목
A교	마음공부(4), 마음읽기 쓰기(8), 생활의학(4), 합창(6), 창작실습(6), 작품재배(4)
B교	생활철학(4), 자기관리(4)
C교	특성화 과목 : 마음일기(6), 생활명상(4), 생활요기(6), 산악등반(6), 현장학습(6)
D교	심력(12), 자리관리(4), 인간관계(4), 영화개론(2), 해외탐방(2), 산악등반(6), 태권도(12), 노작(7), 역사탐방(2)
E교	간디문화(4), 식구총회(6), 삶과 철학(6), 이능학습(4), 졸업작품(3)
F교	봉사활동(2)
G교	종교(4), 영화개론(4), 창조와 과학(6)
H교	농사(4), 생태와 환경(4), NGO와 지역사회(6), 통합기행(6), 인터넷연구(4)
I교	마음공부법(4), 종이접기(4)

<표 4>와 <표 5>과 같이 학교 독자적인 개발에 의한 과목을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2개 학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1개 학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 독자적인 개발에 의한 과목에 대해 과목명칭만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6개교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7개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정규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독자적으로 개설한 과목의 명칭에 대해서는 보고·승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목에 대해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개설과목 명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설과목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명칭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 독자적인 개발·개설과목의 대부분이 교재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학교 독자적 개발에 의한 선택 이수과목

학교	과 목
A교	생활예술, 컴퓨터, 음식 만들기, 문예창작, 연구, 수영, 테니스, 태권도, 풍물
B교	종교(4)
C교	특성화 전문교과(10)
D교	도자기(2), 공예(2), 복공예*(2), 사물(2), 무예(2), 불링(2), 단전호흡(2), 적불공예(2), 골프(2), 댄스스포츠(2)
E교	특성화 교과 중 감성, 자립, 교양심화, 특기적성, 진로선택 군에서 28단위
F교	직업연구1·2(4), 직업실습1·2(4), 특기적성(교원강독 등)(2)

한편 시·도 교육청의 승인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목도 있는데, A교의 경우 ‘노작’, B교의 ‘마음공부’, ‘종이접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응답한 대부분의 학교(9개교)는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 독자적 개설과목에 대한 학생평가는 응답한 학교의 경우 모든 과목에 대해 점수 또는 등급화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성적을 기입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4개교이며, 일부 과목에 대해 점수 또는 등급화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성적을 기입하고 있는 학교가 3개교, 모든 과목에 대해 점수화하지 않고 평어 등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입하고 있는 학교가 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독자적으로 교재개발을 하는 데 어려운 점에 대해 자료개발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지적한 학교가 2개교이며, 자료개발에 필요한 교사의 전문역량을 지적한 학교가 8개교, 자료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 문제를 지적한 학교가 3개교, 이 3가지 상황 모두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학교가 3개교였다. 이 답변에 있어서 복수 응답한 경우가 있으나, 학교 독자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데 교사의 전문 역량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개발에 따른 재정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저해 요소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의무 운영을 지적하는 학교가 3개교이었으며, 고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2개교, 학생평가의 학생생활기록부 반영이 3개교, 시·도 교육청 지정 이수과목이 1개교였다. 또한 학생들의 무성의함, 교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체험활동 개발의 어려움, 내입전형의 문제, 교수법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현행 국가 교육과정 적용의 내용과 방법을 위의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이수 선택시기와 방법에 대한 융통적 운영의 필요성을 지적한 학교가 1개교, 고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2개교, 학교의 독특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가 7개교, 시·도 교육청의 대안학교 관심과 이해가 6개교였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에 대한 지적은 학교 자체 문제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초래되는 것 중 대안학교의 시간부족 및 교사수 부족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학교 자체만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사안이다.

바.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 및 국가에 대한 요망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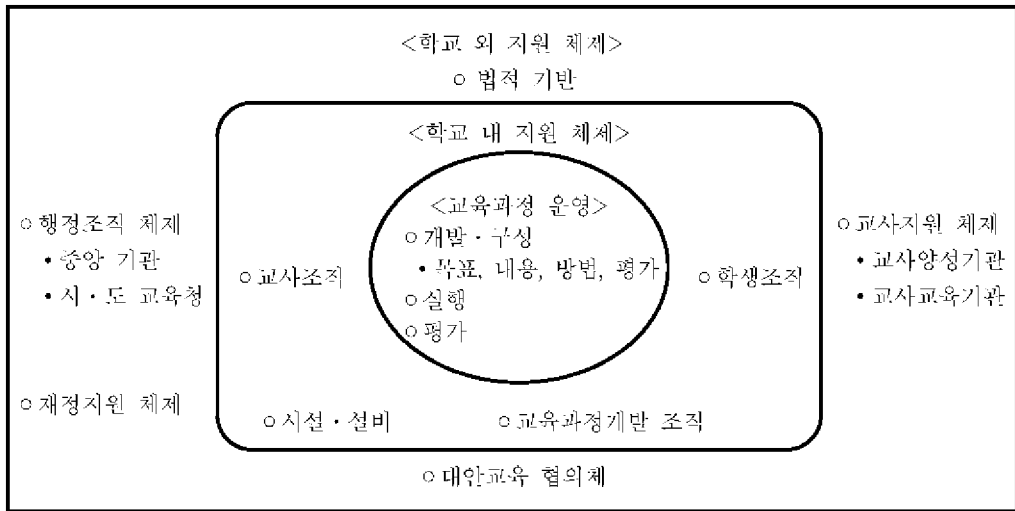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요구사항은 각 대안학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안학교가 시·도 교육청 및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면 이 의견은 시·도 교육청과 국가의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보장, 대학입시 전형의 예외규정 보장
-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자 할 때 주당 36시간의 현 체제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음. 졸업이수 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함.
- 정규교사는 물론 다양한 특성화 강사가 필요하다. 이 인력이 산학겸임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규교사 1인 대신에 특성화 전문강사 3-5인을 고정적으로 계약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절실함.
- 교직원 연수 강화, 대안교육(체험활동영역)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 대안교과서 및 부교재 개발, 지역민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 필요
- 구성원 만족도 조사 및 지속적인 피드백,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의 괴리 최소화
- 대안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가 많이 필요하고(전문성 있는), 그들이 교과운영을 원활히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문제, 교사 임용과 운영문제 등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함.
- 대안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교과목을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할 교사가 필요함.

Ⅳ.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지원 체제

1.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지원 체제의 구조

교육과정의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학교 내·외의 모든 체제는 (그림 2)와 같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 내·외의 모든 체제는 교육과정을 핵(core)으로 하여 둘러싸여 있는 것이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개발·구성하여 실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재투입하는 연속적 과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속적 과정이 원활하게 전개될 때 비로소 교육과정이 활성화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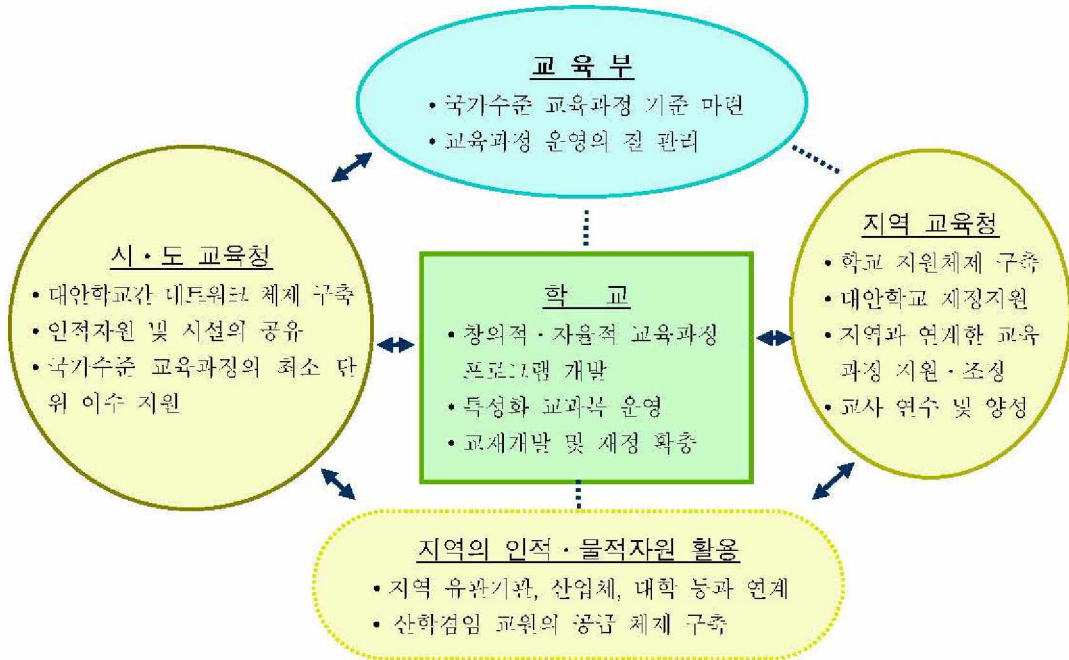


(그림 2) 교육과정을 핵으로 한 학교 내·외 지원 체계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대안학교에 적용될 경우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 2가지가 있다. 즉 하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대안학교의 실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안학교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각 대안학교의 교육이념 및 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의 자율성 발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일반학교와 다른 국가수준 교육과정 적용이 요구된다. 후자의 경우 대안학교는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내의 기반 조성과 학교 내외의 적극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에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적 역량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확인·지원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대안학교간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지원·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을 토대로 창의적·자율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안적 교육을 갈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간의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책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의 역할 체계도



[그림 3]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체계도

2. 대안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적용 방안

가. 국가수준의 대안적 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

1) 유연한 이수단위 규정

대안학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일부 자율학교 지정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일반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실제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안고등학교의 경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고유의 교육이념 및 철학에 따른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자율성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자율편성과 자율학교의 경우는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 재구성된 자율이 허용된 교과목 편성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이수단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국민공통기본교과 외에는 과목편성에서 자율성은 상당히 부여되어 있지만, 이수단위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동일하다.

특히 이수단위 규정 중 국민공통기본교과 이수단위(56단위)와 선택과목 이수단위(138단위), 총 이수단위(216단위, 졸업이수 단위)는 고정되어 있다. 여기에 재량활동(12단위)과 특별활동(12단위)도 있다(교육부, 1998b, p. 125; 교육부, 2002, p. 34).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수단위를 채워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선택과목에 대해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의 교과목 편성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학교의 특성화 교과 개발 의지 및 역량, 시간, 자원 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들과 연동하여 이수단위를 채워야 하는 규정에도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가 그들의 학교 특성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교과목의 개발·운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공통기본교과 및 선택과목, 총 이수단위의 규정을 대안학교의 실정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홍운, 2004, p. 18). 이 방안의 검토에는 각 이수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며, 이수단위 하한단위와 상한단위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재량활동의 완전 학교 자율화

제7차 교육과정 재량활동의 경우 영역별 구분(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그 운영 방식까지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활동의 연간 이수단위 수는 10 단위이며,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4~6단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에 4~6단위를 배정하고 있고, 다만 실업계고등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은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강창동 외, 2002).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2단위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의 영역 세분화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까지 규정함으로써 재량활동이 학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고유한 이념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대안학교의 취지에 맞게 재량활동은 상당부분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설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수기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정시키기보다 2학년과 3학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

3) 자율학교 제도의 전면 실시

대안학교가 그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일반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획일적인 각종 제도와 정책, 행정 관행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설립 기준이나 교육과정 가운데 특성화 교과 부분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완화 또는 자율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서 대안적 교육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1) 교사의 법정 정원 확대 및 양성체제 구축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는 현행 일반계고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이수단위 : 216단위) 형태를 구성하고 있고 대안학교 교사의 법정 정원수도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계고등학교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대안학교 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려하여 정원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 대안학교 교사는 학교 특성상 일반학교 교사에게 비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학교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습 흥미도와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지도상의 어려움, 특성화 수업지도 및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한 별도의 노력, 방과 후 공부방 지도 및 개별학생 학습지도, 다양한 체험활동에 따른 각종 행사 기획 및 현장지도, 기숙사 생활지도, 이탈학생에 대한 개별지도, 방과 후 학생모임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과중은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곽종문, 2004, p. 9).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학교 교사의 법정 정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양질의 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일일 것이다. 대안학교는 교사양성과 임용에 있어서 상당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학교와는 구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일반 교과목 교사들에게는 자격증을 요구하더라도 ‘특성화 교과’ 관련 교사들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자체 내의 규정, 혹은 대안교육 협의회 차원의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대안학교 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인력 풀(pool)을 만들어 임용, 충원하는 체제를 만들고, 대안교육연수원을 통하여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공동연수 등을 통한 활발한 경험교류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정도의 집중적인 전문 교육과정에서 대안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종합적인 교육역량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대안교육 자체의 전문성, 교육답론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대안학교간 협력관계를 통한 개방적 교육과정 개발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많은 과목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일이다. 학교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목의 개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대안학교들은 앞서 정착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고 원용할 수 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대안학교의 획일화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렇듯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은 열악한 대안교육 현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최영준, 2004, p. 41; 이종각, 2001, p.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들은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다양한 특성화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각 학교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연계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내실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과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연구 활동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존재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인정하는 대안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혹은 설립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대안교육을 위한 전국 규모의 사이버대안학습센터나 시·도 차원의 대안교육 센터 등 공적 시스템의 설립뿐 아니라 사적 시스템의 지원 등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

1) 대안학교 실정을 고려한 국민공통기본교과 설정

국민공통기본교과를 모든 정규학교는 필수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경우도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예외가 따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13개교 중 8개교가 1학년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5개교가 1학년과 2학년에 분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 편성에 대한 자율성은 분산·편성과 자율학교 지정의 경우는 교과 재구성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만 문제는 10개 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국민공통기본교과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에 편성·운영되고 또한 학교로서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대안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각 대안학교의 교육이념과 철학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 기간에는 일반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학생들은 대안교육을 받을 기회가 1학년에서는 거의 상실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안학교의 고유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민공통기본교과 구성에 대해서 제

고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안학교 특성을 고려해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에서 교과수가 삭감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요구에 따른 교육력 향상과 직결된다고 보여지는 주요 교과 이외는 선택교과 또는 특성화 교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고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체육의 경우는 필수 이수교과로 두고 타 교과는 선택필수 또는 선택이수, 특성화 교과로의 대체 등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량 강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그 학교의 교육이념 및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이 대안학교에 적용됨으로써 이 자율성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지만 대안학교의 경우 특성화학교나 자율학교 지정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상당 부분 발휘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8a, p. 57).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 적용의 특례사항을 두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즉 주어진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학교 내외의 지원 체제의 미흡이나 총 이수단위 및 영역별 이수단위의 고정과 과다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수준에서 볼 때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는 별도로 국가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양상도 보인다.

여러 가지 자원의 제약이 있지만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더 계획적이고 치밀한 자율성 발휘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일반학교의 경우는 고시된 국가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에 대안학교는 특례사항으로 부여된 자율의 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정유성 외, 1999, p. 38).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학년·학기제, 평가방식, 수업시간과 이수단위제, 과목수와 과목별 시수제 그리고 교과서 사용 등에서 학교 나름의 다양한 편차와 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간 연대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국가 교육과정에의 적응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국가 교육과정의 적응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적응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이다. 국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안고등학교에서도 상기와 같은 특성화 교과 개발·운영을 통해 나름대로 독특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하고 있지만 총 이수단위 등을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을 상당수 편성·운영함으로써 일반학교와 닮아 가는 양상도 볼 수 있

다. 이것은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시각에서 볼 때 대안학교로서의 특징이 상실 또는 의미가 후퇴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안학교는 과도하게 국가 교육과정에 적응하여 ‘일반 학교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국가 교육과정 틀 내에서 그들의 교육이념과 철학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해 스스로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V. 결론

지금까지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다.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의 핵심은 제7차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자율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대안학교를 규정하는 법령의 미비는 명확히 보완하여 단위학교가 실질적인 자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의 탄력적 운영과 내실있는 특성화 교과 운영 및 이수단위 조정 등은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대안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 체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안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교사양성 및 현직교육 기관과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일이다. 아울러 원활한 재정 지원으로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이 훨씬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행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몇 가지 모색하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이것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각 학교가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내용이 한 두 가지 이념만으로 포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어떠한 인간을 기를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교육과정은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경험의 축적과 전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로서 목표에 부합되는 교과내용과 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핵심이 된다. 기존의 일반계 혹은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은 아직까지 거의 전적으로 개별 학교의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격인 학교 역시 개별 또는 학교 간 연대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가급적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학생들의 특성이나 요구를 기본적으로 감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과정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을 교육내용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좀 더 책임있는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좀 더 큰 폭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등학교 수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유지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학년·학기제, 평가 방식, 수업시간과 이수단위제, 과목 수와 과목별 시수제 그리고 교과서 사용 등에서 학교 나름의 다양한 편차와 변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의 과목수와 단위수, 과목별 내용 구성에서 학교와 교사의 재량 범위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학생 입학과 졸업의 유연성이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도 있다.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고조, 매스컴에서의 소개 및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이념 및 특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발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수준에서는 대안학교 교육과정 개발 계획에 대한 심사시스템과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안학교 주체들은 대안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창동·이광우·소경희·강익수(2002).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보고 RRC 2002-3.
- 곽종문(2004).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 대안학교 교육과정 정책연구단.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안 세미나 자료, 14-18.
- 교육부(1998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1].
- 교육부(1998b). **고등학교 교육과정(1)**.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4].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김홍운(2004).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교육과정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방안 세미나 자료, 37-46.
- 유은종(2002). **자율학교 제도의 도입 취지, 현황 및 전망: 자율학교의 취지·특성과 평가에서의 유의사항**. 한국교육개발원. 2002년도 자율학교 평가를 위한 교육학연구자협의회 자료, 1-9.
- 이병환(2001). **국내외 대안교육의 모델 비교**. *지방교육경영*, 6(2),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이병환(2004). **국내외 대안학교의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12(2), 한국열린교육학회.
- 이종각(2001). **초·중등단계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 이종태(2002). **자율학교의 유형별 특성: 자율학교의 취지·특성과 평가에서의 유의사항**. 한국교육개발원. 2002년도 자율학교 평가를 위한 교육학연구자 협의회 자료, 10-26.
- 주철안·성병창·한대동(1999).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제 재구조화 연구**.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 정유성 외 4인 공저(1999).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 방안**.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 최영준(2004). **대안학교 교육과정 평가**. 대안학교 교육과정 정책연구단.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방안 세미나 자료, 62-64.
- 홍후조·박순경·소경희·김성숙·김진숙(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보고 RRC 99-7-1.
-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16개교 2004 학교운영계획서.
- Koetzsch, R. (1997). *The Parents' Guide to Alternatives in Education*.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Inc.

• 논문접수 : 2005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5년 5월 17일 / 게재 승인 : 2005년 6월 2일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 of Support for Quality Management of Curriculum in the Alternative Schools

Byung-Hwan Lee(Professo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Young-Kcun Jcong(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Soon-Nam Kim(Visiting Scholar, The Ohio St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system of support for quality management of curriculum in the alternative schools.

The present curriculum in specialized high school system is organized and managed by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municipal or provincial boards of education with each school. The overall form is basically based on the important points of the 7th curriculum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in the alternative schools are to pursue unified educational process without dividing work and play. They pursuit integrated curriculum in which work and play are not distinguished and intend to educate real life. Emotion and sociality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urriculum in the alternative schools four directions such as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elective-centered curricula, extra curricula activities, optional curricula activities are autonomy and learning society based education were adopted.

The curriculum is made up common and curricular compulsory courses with specialized subjects. Particularly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ized curriculum reveals educational features of each school. Therefore each school needs to design the general frame in the course of specialized high school education within the field of maintaining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autonomy of each school.

Key Words : Alternative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 Regulation-free high schools, Curriculum of alternative schools,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Elective-centered curricula, Extra curricula activities, Optional curricula activities.